

影像与情感的对话

영상과 정감의 대화

辛承佑 著
신승우 저

홍익출판사



影像与情感的对话 영상과 정감의 대화

辛承佑 著
신승우 저



출판사
홍익사



他的作品充满着勤勉与诚实

——代序

韩春



从上世纪80年代开始，我通过报社文化记者这一维持生计的职业关系以及所谓文人的职业关系，多次走访了吉林市朝鲜族群众艺术馆和《道拉吉》杂志社。在这期间，我结识了几位知心朋友，辛承佑就是其中一位。

他最初给我留下的印象，就是勤勉而朴素。每当有大型活动的时候，那个衣着朴实、背着摄影包、跑前跑后忙着按动快门的必定是他，但是说实话，那时我们还很少有机会坐在一起聊天和吃饭，也许是因为他是“照相的”而我是“爬格子”的缘故吧。但是，随着见面次数的增多，烟酒不沾的他和我这个号称“酒漏子”、“大烟囱”的人竟能成为挚友，如果说是偶然也许是偶然，但我肯定决不仅仅是偶然。也许是“物以类聚，人以群分”的缘故使然吧。

俗话说：“日久见人心。”与承佑交往越深，当初的勤勉与诚实的印象也就愈加深刻，随之也产生了对承佑的敬意。就是他那独自挎上摄影背包，一年四季，不分昼夜，忘我奔波的身影；他那为自己所从事的事业而贡献一切的诚意、堂堂正正做工作的态度；和他那将自己所有能量集中到自己从事的单一工作上的姿态，才是值得人们尊敬的。

随着时间的流逝，我更加真切地感到他是位非常努力的人，他不仅仁慈，而且还和善、随和、沉稳，甚至还显得有点憨直。正因为他的这种性格，刚到报社工作的头七年里，没在家过过年，春节时在外地采访的路上；正是因为他的这种性格，才能在从事报业工作的22年间，把自己为之陶醉的美术和篆刻置之不顾，将所有热情投入到一个摄影背包里；正是因为他的这种性格，才能做到从不提及家庭困难，忠诚于自己的事业。

如今，承佑已过了花甲之年，放下了所谓维持生计的报社摄影记者的担子（实际上他还在工作——返聘）。肩上的担子轻松了许多，于是，他找回了搁置一旁的兴趣和爱好，出版了两本篆刻、美术和摄影作品集。而且还将新闻摄影作品和报道作品以《镜头与笔尖的焦点》为书名，作为他人生阶段性总结奉献给了读者。

而后，他又整理出了自己奋斗24年的摄影生涯当中，捕捉到的无法忘怀的瞬间和美的摄影作品，并配上自己创作的诗歌，形成了《影像与情感的对话》——辛承佑“立体诗集”，终于迎来了将这本厚重的诗画集摆在世人面前的机会。

我认为这本诗画收集的40多幅摄影作品，真实地反映了一位新闻摄影家对稍纵即逝的事物的瞬间捕捉能力和诚实人的美好心声。这些不单纯是新闻记者的摄影作品，而是摄影家的热情、诚实、正义、爱憎与洞察力，通过棱镜的瞬间折射而凝结成的一幅幅既朴实又有深厚内涵的摄影作品。卷首的第一个作品《只顾垂垂钓爱情的一对恋人》在宁静而幽雅的背景中植入了丰富的精神内涵，使欣赏者联想万千。接下来，以“爱”为主题的几幅作品和《妈妈的乳房》，脱离一般摄影作品的鲜明化、明朗化以及具体化的框架而设定的构图显得非常突出。这样的构图可以说是表现“爱”的情感的最佳形式。所谓“爱”是用千言万语也无法充分表达的十分微妙的情感的波动、体验，又是情感的兴奋与痛苦。承佑是非常了解这一点的具有艺术悟性的人。作为崇尚明确、直接、具体的新闻摄影家，若是没有上述的艺术天赋，就不可能找到一个恰

艺术表现形式。还有，从《做父母的心》的构图特点来看，一眼就可以看出，作者试图表现的不是“成为父母的人”，而是“当上父母的心”。在《虽说人生短暂》当中，我们可以看出作者试图通过节奏感、速度感、紧张感来表现人生真谛的用心。承佑的确是一位具有丰富的艺术观察力、寓人类情感于自然景物之中来刻画的摄影家。《人情味丢到哪里》、《没有人情味的世界》与《红叶》通过变形的背景与凌乱的画面巧妙地展现了作者试图要传递的本意。另外，《蒲公英花》、《晚秋》、《松花江》、《月夜曲》、《爱好与兴趣(外二首)》、《白山、松水、黑土地养育了我》、《镜头的焦点》等景物作品，于幽深之处，充满着美好、纯真的人间情感，令欣赏者心旷神怡。为我们带来犹如喝到热乎乎的锅巴汤那样痛快的感觉，同时，也为我们带来了喝到散发着浓郁香气的大麦茶那样放松的感受。这是否就是摄影家辛承佑先生向读者们转达的心声呢？这里承载着社会秩序，涌动着人情世态，甚至充满着摄影家的想象力与深厚的人间情谊。

辛承佑先生给自己热爱的摄影作品配上了自己创作的诗歌，生动地激活了作品的主题。正如辛承佑先生在“后记”中所说的那样，他是个摄影家不是诗人。所以，没有必要就他的诗歌谈论什么艺术性。即使他的诗歌“不成体统”、粗糙、不够优雅，如果她真的很好地激活了摄影作品的主题，很好地传达了自己的真实情感的话，就应该称其为好的诗歌。因为，对辛承佑先生来说，摄影作品才是第一位的。

我本以为辛承佑只是位美术家、篆刻家、摄影家，没想到他也有如此温馨的诗情，对此，我非常高兴。我衷心祝愿从此以后他能松一口气，尽享天伦之乐，踏踏实实地去做自己喜欢的事情，不断地丰富自己的人生。

2008年10月28日 于哈尔滨

注：韩春先生系黑龙江新闻社高级记者 诗人 诗歌评论家。

그의 작품에 담긴 근면과 성실

—머리말을 대신하여

한춘

나는 신문사 문화기자라는 생업관계로, 그리고 문인이라는 직업관계로 지난세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길림시조선족중예술관과 《도라지》잡지사를 많이 다녔다. 그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몇몇 지우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신승우씨는 그중 한 사람이다.

행사때마다 너무도 수수한 옷차림에 카메라가방을 메고 앞뒤로 뛰어다니며 부지런히 사타를 누르는 그가 나에게 준 인상이라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소박하다는것이다. 그러나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정작 한자리에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기회는 많지 못했다. 류류상종 이라는 말과 같이

그는 “사진쟁이”이고 나는 “글쟁이”라 서로간에 서먹서먹했었다. 그러나 점점 만나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후에 알고보니 나이도 거의 동년배여서 서로 찾아 옆에 앉는 일이 잦아졌다. 술을 한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담배를 한모금도 피우지 않는 그와 “말술에 즐담배”란 꼬리를 단 내가 이렇게 지우로 된것이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 그러나 단순히 우연한것만은 아니다.

사람이란 오래 사귀어야 그의 진실한 일면을 알수 있다는 말이 있다. 승우씨와 깊이 지낼수록 그에게서 받았던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첫인상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사람이 인생을 배우고 삶을 살찌우고 자기 이름석자에 부끄럼없게 사는데는 여러 경로가 있을것이다. 그중 책을 많이 읽고 여러 “도사”들의 “특강”을 많이 듣는것도 하나의 도경이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요긴한것이 있으니 그것인즉 언제나 카메라가방 하나를 달랑 메고 일년 사시절 철없이 때없이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이바지하는 생업에 성의를 다 바쳐 등뼈를 꼳꼳이 세우고 일하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종사하는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것이고 이 또한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 생각한다.

승우씨는 좀체로 자기 “자랑”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의 동료들로부터 그가 여간한 노력가가 아닌것을 더 실감할수 있었고 그가 이룬 성과와 그가 받아안은 영예가 너무도 화려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어딘가 덕성스러움을 보여주면서 수더분하고 찬찬한 그는 지어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이기때문에 신문사에 입사한 첫 7년 동안에 그는 취재를 한답시고 자기 집이 아닌 외지에서 설을 보낼수 있었던것이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이기에 신문사에서 22년동안을 자기가 것처럼 심취했던 미술과 전각을 일절 뒤전으로 던져두고 카메라가방 하나에만 모든 정열을 투입할수 있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이기에 그는 가정의 어려움을 한마디도 입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자기 직업에 충직할수 있었다.

회갑년이 지난 승우씨는 이제야 비로소 직업으로서의 신문사 촬영기자라는 짐을 부려놓을수 있었다. 은퇴의 나이가 들어서서 두어깨가 좀 가볍게 되자 뒤골목에 던져두었던 취미와 애호와 사랑을 다시 찾아 내어 전각, 미술, 촬영 작품집 두권을 상재했다. 그리고 《렌즈와 붓끝의 초점》이란 신문촬영작품과 기사작품을 인생의 한단락 총화로 엮어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그리고 24년간 자신의 육신과 정신을 다 바쳐온 촬영생애에서 잊지 못할 순간마다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사진작품에 자작시를 곁들여 《영상과 정감의 대화》—신승우 “립체시집”이란 묵직한 시화집을 드디어 이 세상에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 시화집에 실은 40여점 사진작품들은 신문촬영가의 번쩍이는 순간포착력과 한 성실한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신문기자로서의 촬영작품이 아니라 촬영가의 정열, 성실, 정의, 애증, 소명감 등이 한점 또 한점의 순간 프리즘을 통해 고착시킨 질박하면서도 깊은 내함이 담긴 촬영작품이다. 권두 첫번째 작품인 “사랑만 낚는 한쌍의 런인”은 조용하고 아늑한 배경에 심령적인 내포를 심어놓아 보는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런상하게 한다. 이어 “사랑”이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몇점의 작품과 “엄마의 젖가슴”은 일반 사진작품의 선명성, 명량성, 구체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설정한 구도가 돋보인다. 이와 같은 구도가 “사랑”이란 정감을 표현하는 좋은 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사랑이란 천만마디 말로 표달할수 있으면서도 결국 충분하게 표달할수 없는 아주 미묘한 정서적파동이고 체험이며 또한 흥분이고 아픔이다. 신승우씨는 이 점을 너무도 잘 아는 예술가적지성을 가진 사람이다. 명확성, 직접성, 구체성을 강조하는 신문촬영가의 신분에서 상기와 같은 예술적천부가 없다면 이에 걸맞는 예술적구성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부모된 마음”이란 작품의 구도상 특점을 보더라도 작자가 보여주려고 시도한 것은 “부모된 사람”인것이 아니라 “부모된 마음”이라는것을 일견에 보아낼수 있다. “인생길은 짧지만”은 룰동감, 속도감, 긴장감을 통해 인생의 진미를 표현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신승우씨는 자연경물에 인간의 정감을 이전시켜 부각하는 예술적조명력이 풍부한 촬영가다. “인정미는 어디로 갔나”, “인정미가 없는 세상”, “단풍잎”은 변형된 배경과 형클어진 화면을 통해 작자가 전달하려는 뜻을 묘하게 퍼올리고있다. 그리고 “민들레꽃”, “늦가을”, “송화강”, “월야곡”, “애호와 흥취”, “은하변에서 노래하리”, “렌즈의 초점” 등 경물작품은 그윽함속에 소박하고 아름답고 순직한 인간정서가 넘쳐흘러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치 따끈한 숯불물을 마시는 짜릿한 감각을 주면서도 그윽한 향취를 풍겨주는 보리차를 마시는 넉넉한 감수도 안겨준다. 이것이 바로 촬영가 신승우씨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맘속의 목소리가 아닐가? 여기에는 사회질서가 담겨있고 인정세태가 살아숨쉬며 그보다 촬영가의 사변적능력과 더불어 진한 인간적정이 흘러넘친다.

신승우씨는 자기가 사랑하는 촬영작품에 자기의 자작시를 함께 곁들여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제를 생동하게 살려냈다. 신승우씨가 “후기”에서 말했듯이 그는 촬영가이지 시인이 아니다. 때문에 그의 시를 두고 예술성 운운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 비록 그의 시가 “어설피고” 거칠고 운치가 결핍하더라도 사진작품의 주제를 잘 살려내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잘 전달했다면 그 시는 그 사진에 잘 맞는 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신승우씨에게 있어서 사진작품이 우선이기때문이다.

미술, 전각, 촬영가 신승우인가 했더니 그에게도 푸근한 시심이 있는것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천륜지락을 맘껏 만끽하면서 하고싶은 일들을 차곡차곡 짊어가며 년륜을 두텁게 늘어갈것을 기원한다.

2008년 10월 28일

할빈에서

주: 한춘선생님은 흑룡강신문사의 고급기자이고 시인이며 시평론가임.

目录/목록

他的作品充满着勤勉与诚实 一代序 韩 春.....	1
그의 작품에 담긴 근면과 성실—머리말을 대신하여 한 춘.....	4
只顾垂钓爱情的一对恋人/사랑만 남는 한쌍의 연인.....	10
爱情是个啥/사랑이 뭐길래.....	12
每当想起她的时候/그녀를 그릴 때마다.....	14
爱情的痛苦/사랑의 아픔.....	16
真空里的爱/진공속의 사랑.....	18
打碎的碗, 破碎的心/깨여진 그릇, 조각난 마음.....	20
雨天/비오는 날.....	22
三十七载过去, 弹指一挥间/륙십갑자에 봄빛 뿌려.....	24
可别说托的是老头儿的福/령감덕에 산다고 하지 마오.....	26
做父母的心/부모된 마음.....	28
妈妈的乳房/엄마의 젖가슴.....	30
母亲的爱/어머니의 사랑.....	32
我为子孙而活/나는 자손을 위해 살아.....	34
夕阳越来越红/석양은 갈수록 붉어지고.....	36
脸上的皱纹/얼굴의 주름살.....	38
虽说人生短暂/인생길은 짧지만.....	40
人生路上的“。”/인생길의 “.”는.....	42
人情味丢到哪里/인정미는 어디로 갔나.....	44
没有人情味的世界/인정미가 없는 세상.....	46
口是心非的家伙/이런 인간.....	48
红叶/단풍잎.....	50
蒲公英花/민들레꽃.....	52

晚秋/늦가을.....	54
松花江/송화강.....	56
中秋的圆月/추석날의 둥근달.....	58
月夜曲/월야곡.....	60
地球—我可怜的母亲/지구—불쌍한 나의 어머니.....	62
狼礼赞/승냥이 레찬.....	64
干瘪的风/바람까지 말라빠져.....	66
怀念小草房/초가집이 그리워.....	68
强盗竟然闯入了烈士陵园/렬사릉에 날강도가 들다니.....	70
可怜的公用电话/불쌍한 공중전화.....	72
隔不断的骨肉之情/혈맥은 하나, 념원은 통일.....	74
飞向长空的第一只“蓝鸟”/창공에 날아오른 첫“파랑새”.....	76
在松花江畔盛开的“道拉吉”花/송화강반에 핀 “도라지”꽃.....	78
为了孩子们/아이들을 위해서.....	80
爱好与兴趣(外二首)/애호와 흥취(외2수).....	82
耕云播雨/구름 갈고 비 뿌리니.....	84
白山、松水、黑土地养育了我/은하변에서 노래하리.....	86
镜头的焦点/렌즈의 초점.....	88
志同道合到如今/오늘날까지.....	90
镜头与诗, 是我的全部/렌즈와 시는 나의 전부.....	92
牛的象征/소 이야기.....	94
后记.....	96
作者简介.....	97
诗集—附.....	98
出版的著作.....	100
获奖作品.....	101
编入作者传略和作品的典籍(画册).....	104
《南永前图腾诗字句印/辛承佑篆刻》书评摘要.....	105

只顾垂钓爱情的一对恋人

春雨蒙蒙

雨伞下坐着一对恋人

不顾鱼鳔在扎猛

好似鸽子惦记黄豆地

只顾垂钓爱情的一对恋人

—— 1992年5月 于广东省珠海市

사랑만 낚는 한쌍의 연인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

우산아래 앉은 한쌍의 연인

자맥질하는 낚시찌도 본체만체

콩밭에만 마음있는 비둘기처럼

사랑만 낚는 한쌍의 연인.

—— 1992년 5월 광동성 주해시에서





爱情是个啥

——寄往阴曹的信

爱情是个啥
爱情是生命
不
爱情是死亡
浸透爱的露珠
遮住了眼帘
她的背影好模糊

她走了
把创伤留在男子汉的心上
朝着那雾蒙蒙的丛林
永远离去

爱情是个啥
爱情是大丈夫
不
爱情是狗熊
凝结爱的露珠
打湿了耳根
听不到她的心脏跳动

她走了
把痛苦嵌在男子汉的心上
沿着松花江的碧波
向东海悠然地
永远离去

爱情是个啥
爱情是沉默
不
爱情是痛苦
一封表白爱的书信
遮住了视线
看不到她的笑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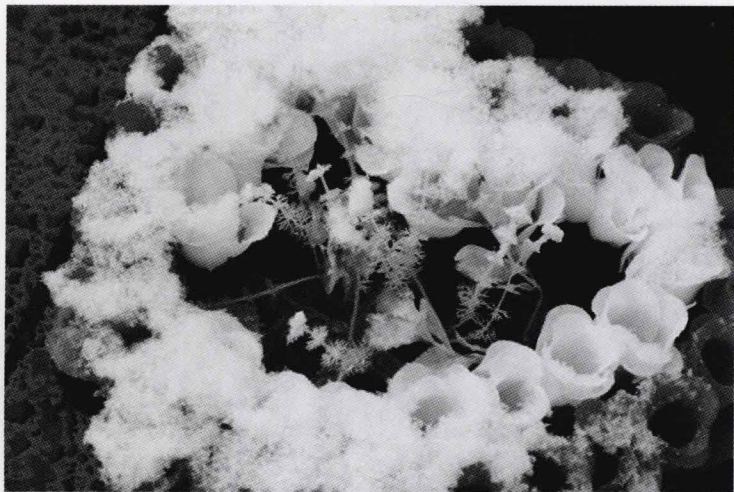
她走了
把西洋画家的专著丢给男子汉的怀中
乘着苍穹的白云
悄然离去

——在她去世2周年前夕

2007年1月2日凌晨2时 于杂味书斋

注：原载于《吉林朝鲜文报》

2007年3月10日 B3版



사랑이 뭐길래

—— 저승에 보내는 편지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생명
아니
사랑은 죽음
사랑을 담은 이슬방울
앞을 가리워
그녀의 뒤모습 아릿하구나

그녀는 갔다
사나이 심장에 못 박아놓고
안개 자욱한 저 숲속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대장부
아니
사랑은 졸장부
사랑이 맺힌 이슬방울
귀밀을 적시여
그녀의 가슴 고통 들을수 없구나

그녀는 갔다
사나이 가슴에 고통을 심어놓고
푸른 송화강물 따라
동해바다로 유유히
영영 가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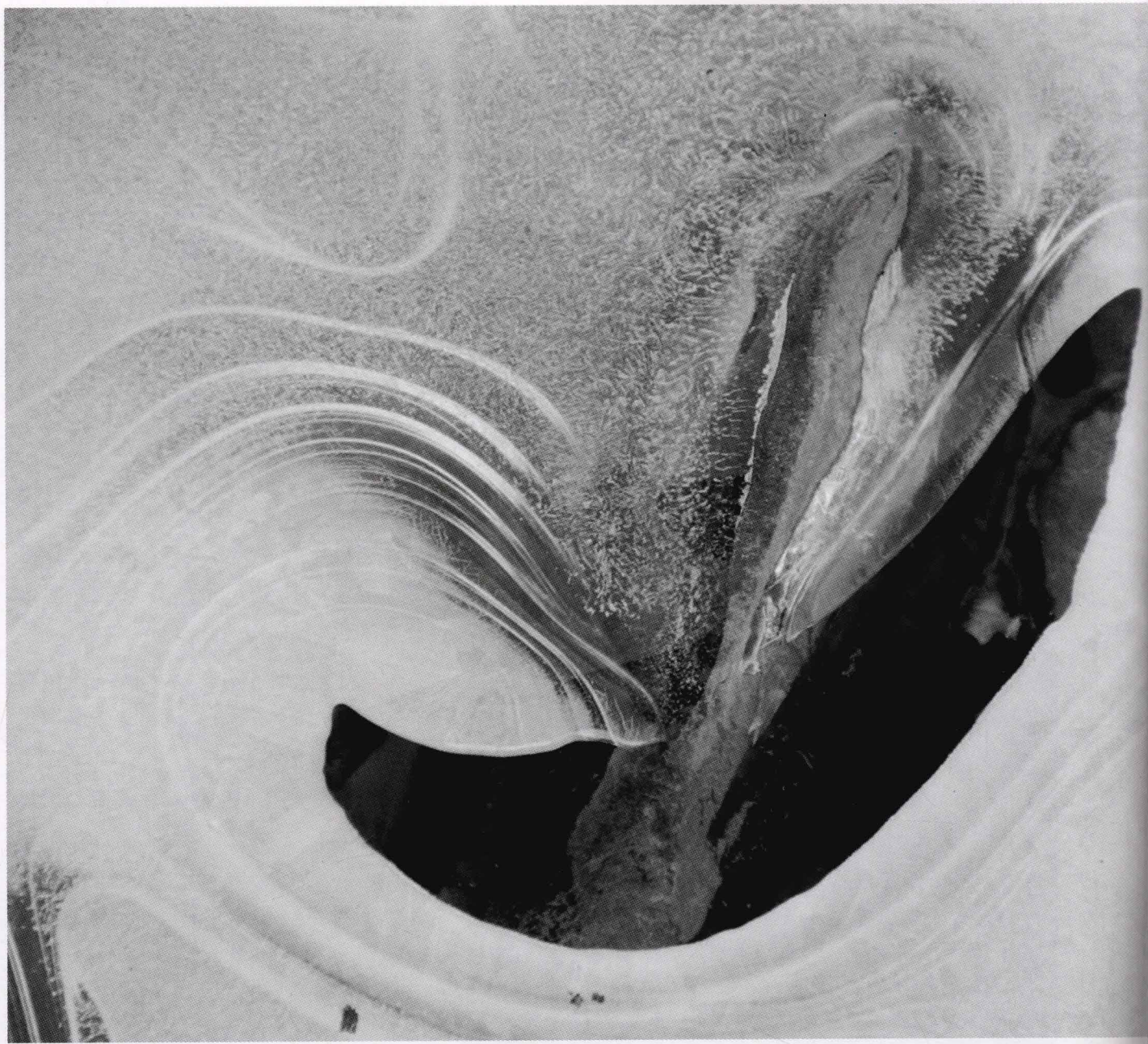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침묵
아니
사랑은 고통
사랑을 고백한 편지 한통
앞을 가리워
그녀의 웃는 얼굴 볼수 없구나

그녀는 갔다
사나이 품에 서양화가전서 안겨놓고
파란 창공의 흰구름 타고
말없이 고요히 떠나갔다.

—— 그녀 별세 2주년을 앞두고

2007년 1월 2일 새벽 2시 잠맞서재에서

주: 《길림신문》 2007년 3월 10일 B3면



每当想起她的时候

每当想起她的时候
温暖的春风
拥进胸膛
飞扬的发丝抚摩我的脸庞

每当想起她的时候
悄然的细雨
沁入心底
甘甜的雨水滴在我的唇上

每当想起她的时候
火红的枫叶
烧断肝肠
柔软的被褥盖在我的身上

——2007年11月12日黎明 于杂味书斋

그녀를 그릴 때마다

그녀를 그릴 때마다
따뜻한 봄바람
가슴팍에 안겨오고
흘뿌린 머리칼 내 얼굴 어루만지네

그녀를 그릴 때마다
잔잔한 보슬비
마음 깊이 스며들며
달달한 비물 내 입술 적시네

그녀를 그릴 때마다
진붉은 단풍잎
속간장 태우며
포근한 이부자리 내 몸 덮어주네.

——2007년 11월 12일 새벽 잠맞서재에서